



소월의 후예, 시인 나희덕

삶이 지불되지 않으면 좋은 시는 나올 수 없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나희덕 시인은 최근 <썩음이 보이는 방>으로 제22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슬픔을 줄곧 노래해 왔다는 점에서, 서정적 전통의 자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시적 사물보다는 자연을 통한 발견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소월의 식솔 또는 후예인 듯하다”고 말했다.

“소월의 식솔 또는 후예”란 말이 이렇듯 자연스러운 시인이 또 있을까. 시인과 시는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시인과 시는 희귀한 이 시대에 그녀는 분명 특별한 시인이다. 일상의 보편성 안에서 직조해낸 언어로 존재의 심연을 형상화하는 그녀의 시들은 정갈하고 단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시인이 진정으로 “소월의 식솔 또는 후예”인 이유는 그녀의 시가 발현하는 바로 그런 ‘힘’ 때문이다.

시인의 시가 준 감동과 설렘을 고스란히 품고 수상을 핑계 삼아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시인을 만났다. 몇 시간 후 조계사에서 나팔꽃 동인의 공연이 있다는 시인은 화사한 빛깔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기자를 만나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갖는 문학인 모임에서 ‘일본 소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많이 바쁜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스물셋이란 이른 나이에 등단한 이후 ‘직업인’이 아닌 적이 없었기에 쫓가리 시간을 쓰는 데 익숙하고, 모드 전환이 빠른 편”이라며 웃었다.

첫 시집 《뿌리에게》(1991)부터 다섯 번째 시집 《사라진 손바닥》(2004) 그리고 최근 <썩음이 보이는 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단 20년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 세계는 완만하긴 하지만 꾸준히 변화해 왔다.

“나이 드는 삶의 과정과 같이 가는 셈이지요. 초기 시들이 20대의 감수성, 대지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었다면 이후의 시집들은 그 물기가 조금씩 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하지요. 특히 광주에서의 생활이 내면화된 공간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로 등단한 이후 김수영문학상(199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1), 현대문학상(2003), 소월시문학상(2007) 등 국내의 우수한 문학상을 휩쓴 시인은 2001년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임용되어 광주 생활을 시작했다. 시인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길을 걸어온 셈이다. 특히 ‘교수가 되면 시를 쓰지 못 한다’는 문단의 터

부를 깨고 교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탁월한 시적 성취를 선보이고 있는 시인의 행보는 한국 서정시의 건실한 희망이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을 수식하는 ‘서정시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무언가로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시와 서정시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넓은 의미의 서정시라 하더라도 서정을 깨트리고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손쉽게 서정시인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시를 잘 쓴다는 식의 단순한 평가보다, 나의 시 세계가 변화하고 서서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깊이 있게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언어를 통해 타인과 교감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의 언어를 순도 높게 제련한 후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여타 장르와 비교했을 때 시인이 가져야 하는 언어의 ‘순도’는 단연 으뜸이다.

“시는 실존적인 몫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강합니다. 시인의 시는 모습이 정직하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품과 시인의 실천적 기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이 지불되지 않으면 좋은 시가 쓰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를 한 편 쓰고 나면 내 자신이 텅 빈 것 같아요.”

새 시집의 출간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시인은 들뜬 목소리로 “오는 8월부터 몇 개월 동안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국제창작프로그램(IWP)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시집의 시들을 정리해 내년쯤 새로운 시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시인을 꿈꾸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새로운 세대들이 좁고 획일화되어 있는 시 문법에 과감히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기법적인 새로움에 밀려 시의 진정성이나 내면의 치열함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등단을 지켜보지만 시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라도 제대로 된 시인이 시의 영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와 힘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가로 산다는 것의 부담이나 긴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학의 위업도 유지될 수 있겠지요.” ■